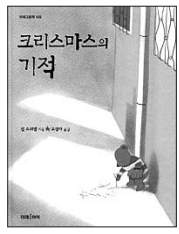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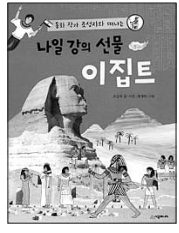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크리스마스의 기적=대만 작가 천 초위엔의 그림동화. 따뜻한 그림과 잔잔한 이야기로 크리스마스와 가족, 그리고 우리가 흔히 주고 받는 선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장면마다 숨어 있는 아기 곰의 친절한 얼굴과 행동을 찾아보는 것도 재밌다. (미래아이·9000원)



▲나일강의 선물 이집트=동화작가 조성자씨와 떠나는 세계여행 세번째 권. 카타르 피라미드와 스피크스 등 이집트를 직접 여행한 후 풀어쓴 여행서다. 나일강을 따라 작가가 직접 여행하면서 겪은 이야기들을 소소하게 풀어 놓으며 유적지마다 얽힌 이야기와 역사적 사실, 정보와 함께 전해준다. (시공주니어·1만2000원)



▲선생님도 첫사랑이 있었나요? =박관희씨 등 동화작가 7명이 들려주는 어린이 첫사랑 이야기가 실린 단편 모음집이다. 남몰래 두근두근 마음 졸였던 짝사랑, 용기 내어 고백했다 외면당한 쓰라린 사랑 등 누구나 겪었을 법한 첫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이 서로 다른 색깔로 그려져 있다. (웅진주니어·9000원)



▲고구마 버스=아이들 내면에 가득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생쥐들과 함께 고구마를 캐내며 줄기 밑에 어떤 모양일지 상상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변신하는 버스 아저씨의 모습에서 기발한 발상의 전환을 배울 수 있다. 온갖 의성어와 의태어가 이미지를 더욱 실감나게 한다. (뜨인돌어린이·9800원)



▲앳! 도서관의 책들이 사라졌다=세상 모든 책을 지킨 용감한 소년 '도영이'의 모험 속으로 초대한다. 도서관에 간다고 한 후 사라져버린 아빠를 찾기 위해 시간 이동의 마법이 깃든 '도서관에 없는 책'과 함께 세계의 도서관을 헤매면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흥미롭게 담아냈다. 도서관과 관련된 위인들을 만난다. (토요북·9500원)



▲노마의 진짜 꿈=다문화 아이의 슬픔과 희망을 노래한다. 노마는 축구 선수를 꿈꾸는 초등학교의 1학년 아이다. 다른 아이들보다 축구에 대한 승부욕도 강하고 정말 씩씩하다. 그런데 친구들은 '시커먼스'라고 놀리며 '너네 고향에 가라'고 한다. 그럴수록 노마는 더 씩씩하게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 간다. (아름다운사람들·1만원)



▲문어와 코코넛 전쟁=아동극과 동화를 집필하는 김선미씨의 동화. 사실을 바탕으로 바다 속 생물들이 친구를 사귀고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따스하게 그려냈다. 특히 알들이 무사히 부화하도록 천적으로부터 현신적으로 지키다가 굶어 죽고 마는 엄마 문어를 통해 '엄마의 사랑'을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아름다운사람들·9500원)

▲동수야, 어디 가니? =6~8세 어린이에게 안전 의식을 길러주는 그림책이다. 낯파 아이 '동수'가 처음으로 엄마 없이 혼자서 아빠의 생일 선물을 사러 집을 나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동수'의 시선으로 위험한 주변 상황을 지혜롭게 피해가는 모습을 그려 어린이들이 쉽게 안전수칙을 익히도록 했다. (문학동네·1만원)

동서고금의 '성 스캔들' 역사를 바꿨다

역사를 바꾼 성역 이야기 리수충 지음



중국 최초로 성과학을 재창조하고 성과학 학술자료를 총망라한 '성과학 총람' (Handbook Sexology)의 번역을 주관한 리수충(李書崇)의 '역사를 바꾼 성역 이야기'가 번역 출간돼 나왔다.

'인류의 성 문화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은 아주 먼 옛날의 성기 숭배 사상부터 중세와 산업화 시기의 성 문화까지 동서고금의 성 문명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사실들을 진지하게 이야기한다. 책의 집필 동기가 된 저자의 문제 의

식은 인류는 일찍이 선사시대부터 성문명과 관련한 약탈, 다름, 살인 등의 온갖 악행을 저질러왔으나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감춰지면서 지금은 사회 각 방면에서 상층처럼 짓무르고 풀이 터지고 있다는 것. 저자는 이 문제를 제대로 마주하고자 '역사 속의 성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펼쳐보인다.

이를 위해 저자는 성의 근본적 속성 뿐만 아니라 성 스캔들로 인한 역사의 변혁에 주목한다.

3000년 전, 예제 해에서는 9000척의 전함과 수십만 명의 군사가 동원되어 10년 동안 전쟁이 치러졌는데 바로 이 전쟁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 이 전쟁은 원인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가 사랑의 도피를 했기 때문이었다.

서양사에서만 아니라 동양사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쉽게 찾을 수 있다. 300여 년 전 중국 명나라 북방 지역의 군사 요충지에 주둔하던 오삼계(吳三桂) 장군에 얽힌 일화가 대표적이다. 만주족의 청군(淸軍)이 변방에서

대규모로 집결하여 세력을 떨치며 위협하고 있을 때, 오삼계는 사랑하는 연인 진원원(陳圓圓)이 북경에서 이자성(李自成)의 농민 반란군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했으나 결국 사랑 때문에 마음을 바꿔 청군과 결탁했고 만주족이 중국을 차지하도록 도왔다.

또한 남동생이자 남편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밀어내고 이집트의 왕이 된 클레오파트라를 사랑으로 침입자를 사로잡았으며, 고금을 막론하고 중국에서 가장 독보적인 여황제로 군림한 측천무후는 자유로운 성생활을 통해 남진 사회에 도전했다.

이 외에도 성 스캔들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고 한 나라가 망한 예는 무수히 많다.

저자는 이렇듯 성 스캔들은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스캔들은 다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측천무후. 중국에서 가장 독보적인 여황제로 군림한 측천무후는 자유로운 성생활을 통해 남진 사회에 도전했다. <시그마북스 제공>

저자는 또한 동서양의 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문화사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암흑의 중세기에 성이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낭만적인 사랑과 누드에 예술, 방종술과 에로틱 문화의 관계, 산업화가 성 개방 풍조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저자는 "현대의 서양인들은 남녀 모두 성생활에 개방적이지만, 결혼에 있어서는 여전히 엄격한 일부일처제의

전통을 따르는 반면 동양은 성과 관련한 행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완곡하고 소극적이지만 고대에는 일부다처제와 성을 마음껏 즐겼던 문화적 배경이 있다"고 설명한다.

책 곳곳에 등장하는 성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유물과 그림, 사진 자료들은 이해를 돕고 보는 재미를 더한다. <시그마북스·1만5000원 /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내하고 웃어라 삶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웃어요 이미숙 지음



강원도 횡성에 있는 성 도미니코 선교수녀회에서 도망고청소년센터를 열어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돌보고 있는 이미숙(이가다) 수녀가 웃음으로 행복해지는 이야기를 담은 웃음 에세이 '그러니까 웃어요'를 출간했다.

웃음치료사 야가다 수녀는 가족간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이들,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 고스트러운 이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한 이들에게 힘줄수록 웃으라고 권한다.

그녀의 웃음 전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인정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했다. 내면 깊숙이 가라앉은 웃음 에너지를 끌어올려 진짜 웃음이 갖는 긍정의 에너지를 부르는 방법을 제시한다.

야가다 수녀는 책에서 고통이나 슬픔은 잠시 우리 곁을 지나가는 비바람이라고 말한다. 그 순간 웃으며 태양을 기다리다보면 자신보다 더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귀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인내하고 사랑하며 웃고, 도전하며 웃을 때 삶은 행복에 가까워 다가가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단순한 진리를 전하는 그녀는 평화방송 TV와 라디오의 인기있는 출연자이기도 하다. 화가 금동원씨가 밝고 아름다운 삽화를 그렸다.

(마음의숲·1만3000원) /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상가들이 전하는 생명담론

글로벌 생명학 이기상 지음



각자 별개 아니라 공동의 생활운명체가 된 지구촌 시대, 하나뿐인 지구 생명을 살려나가기 위해 동서철학의 화합과 융합이 필요한 오늘날, 모든 생명체가 함께 어울려 살수 있는 공생의 길을 모색하고 인문학의 근간인 인간의 근본적인 역할과 존재에 대한 총체적 탐구가 절실했다.

이기상 한국외대 철학과 교수의 '글로벌 생명학-동서 통합을 위한 생명 담론'은 인류의 당면 화두를 '생명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구적 세계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생명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제시한 연구서이다.

저자는 동아시아 고유의 전통적 사상을 바탕으로 한 존재론적 통합속에서 새로운 통합의 원리를 찾는다. 전 세계 공통 담론인 '지구 환경과 인간의 관계'라는 보편적 주제를 고찰하면서 동양적 사상, 더 깊게는 우리의 전통적 생활방식이 만들어낸 자생적 이론을 발굴하고자 했다.

특히 우리사상연구소 소장이기도한 저자는 류영모, 함석헌, 김지하 등 국내 사상가들의 생명 담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한국적인 이론의 세계화'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국내외 인문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통해 동양과 서양을 넘나드는 통찰, 사유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목표로 출간할 자유과목의 '뉴아이브 총서' 첫 번째 책이다.

(자유과목·3만원) /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명화로 만난 국내외 화가들

내가 처음 만난 예술가 실비 지라르레·정하섭 외 지음



아이들이 명화와 놀면서 자연스럽게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예술 놀이책 '내가 처음 만난 예술가' 시리즈(전 10권)가 나왔다. 책은 명화를 보며 숨은그림찾기를 하듯 요모조모 비교하고, 하나하나 찾아보며 신나게 놀 수 있도록 꾸몄다.

시리즈의 첫 번째 그림책 '사갈'을 펼치면 그의 그림 '자화상' 속에서 사갈의 눈을 찾아보는 놀이로 시작한다. 그림 속 모양이나 물체를 찾아보거나, 사용한 색깔도 찾을 수 있고, 베껴 그린 그림들 중에 진품 명화를 찾아볼 수도 있다.

파카소가 여자 친구를 그린 '너쉬 엘뤼아르의 초상화'에서는 그녀의 옆얼굴을 찾아보는 놀이를 한다. 앞모습 같기도 하고 옆모습 같기도 한 그림을 보다 보면 앞얼굴과 옆얼굴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된다.

그림 속의 인물이나 물체의 그림자 찾기도 재밌다. 레오나르도가 그린 그림 속 주인공의 다양한 미소 짓는 입술을 찾아 연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틀린 그림 찾기, 그림 속 무늬를 찾아보거나 그림에 어울릴 만한 이야기를 주어진 낱말로 지어보는 등 재미난 놀이가 가득하다.

이외에도 빛을 그리는 인상주의 화가 모네, 아이와 소를 특징 있게 그려낸 화가 이중섭 등 서양과 한국의 대표 예술가 10명을 200여점의 명화와 함께 만날 수 있다. (길벗어린이·각 권 9000원) /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했었던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www.kukjepharm.co.kr



Advertisement for Kukje Pharmacy featuring a family photo and a young boy on a phone, with text about love and health.